성산포항 선박용 유류탱크 이전 '의견차'

성산지역 어업인 5개 단체-성산항운노조 간 마찰
"외항 겹치는 곳에 이전" VS "이설시 생존권 위협"

서귀포시 성산포항 내 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어업 선박용 유류탱크 이전 문제와 관련해 성산지역 어업인 단체와 성산포항운노조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6일 성산포수협에 따르면 성산포항 내 어업선박용 유류탱크는 총 3기가 설치돼 있으며 3만8000ℓ가량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다.

해당 유류탱크 중 2기는 1990년대 초반에 조성돼 30여년이 지나면서 최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보수비만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 유류탱크 조성 이후 그동안 성산지역 어업인 단체 등에서는 위험시설물인 유류탱크가 상가 지역 인근에 소재해 있어 안전 우려의 이유로 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산포수협은 올해 예산 20억원을 투입해 유류탱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협의 유류탱크 이전 부지선정 과정에서 성산지역 어업인 단체와 성산포항운노조 간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사)성산포수협어선주협회, 성산포수협연승선장협의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사)전국수산물중도매인연합회성산포지회, 성산포항상가번영회협동조합 등 성산지역 어업인 5개 단체는 유류탱크를 현재 위치에서 200여m 떨어진 성산 외항과 맞닿아있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유류탱크 근처에 민가가 소재해 있어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며 "또 위치가 협소한 탓에 성수기 채낚기어선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위판과 주유가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류탱크를)성산 외항과 겹치는 곳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마련해 행정당국에 조정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행정에서는 외항에 입주한 성산항운노조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분별없는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산항운노조는 안전, 생존권 등의 이유로 성산 외항 인근으로의 유류탱크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성산항운노조 측은 "성산 외항은 선박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현재에도 하역 작업부지가 협소해 여러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 하역 작업 중 대형컨테이너를 크레인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스파크도 발생한다. 만일 유류탱크가 이곳 근처로 이전된다면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코로나 함께 극복"… 이어지는 기부 물결

제주시에 성금·마스크 기탁
건입동 상가 임대료 감면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물론 마스크 기부 및 성금 기탁 등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 사회적 기업에서 순면이중마스크 200매를 제작해 기부한 것을 비롯 아라동의 한 문구점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마스크 500매를 기부했다. 또한 건입동 소재 한 상가에서는 입주점포 21개소에 대해 3~4월분 임대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성금 기탁도 잇따르고 있다. 건입동 주민 김모씨는 어려운 가구에 도움을 주고 싶다며 200만원을, 모 로타리클럽에서는 창립기념식을 취소하고 기념식 경비 일체 250만원을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각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외도동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도 평소 잔돈을 모아 마련한 80만원을 기부했다.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읍면동에서는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추진으로 자생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방역물품 지원 및 예방수칙 홍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주민 다수 이용시설 1900여개소에 대해 26개 읍면동, 126개 단체에서 회원 1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9200여회 활동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예방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 등이 지속되도록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코로나로 지친 마음 치유"… 심리방역 실시

도내 상담인원 860여명 넘어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불안감과 경제위축에 따른 무기력 등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우울감과 불안감, 불면 등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겪는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지난 22일 기준 전화상담 559명, 문자 안내 305명 등 총 864명이다. 아울러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들에게는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돼 생기는 고립감, 소외감, 사회적 단절감 등 심리적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에게도 심리상담을 전개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02-2204-0001~2), 격리자 및 도민들은 (기초)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응원, 가족 살피기 등의 캠페인도 심리방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침체된 지역경제 위해"
제주시, 중앙재원 확보 총력
공모 통해 6개 사업·10억여원

제주시가 장기간 이어진 침체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단위 공모사업 발굴을 통한 재원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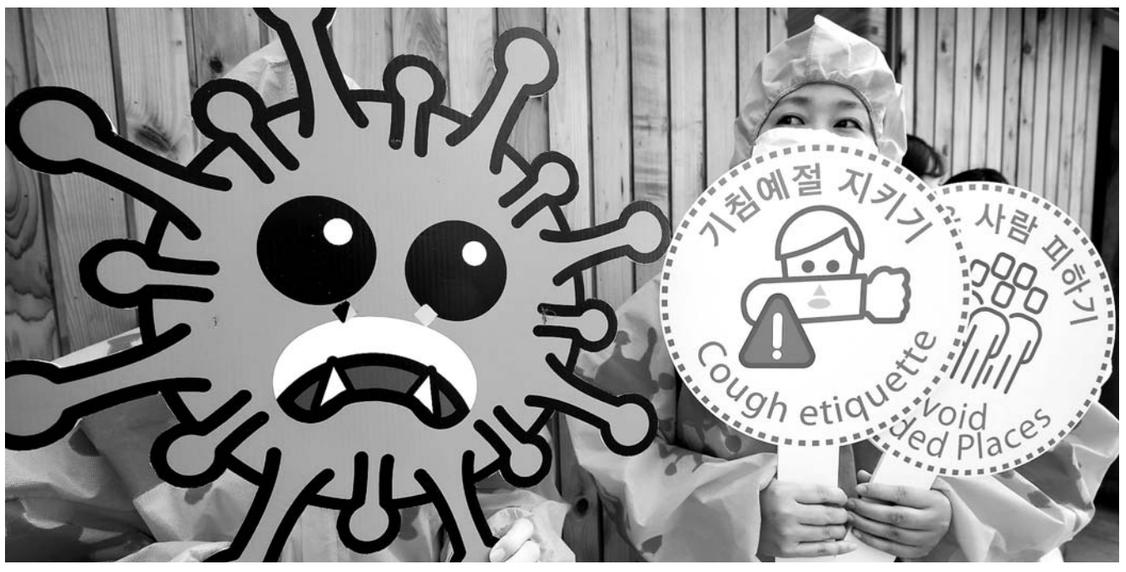
시는 올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앙단위 공모사업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응모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중앙단위 공모에 6개 사업이 선정돼 10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선정된 사업은 2020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0억원)을 비롯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인문독서아카데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도서관·박물관 1관1단 사업, 이야기가 있는 코딩사업 등이다.

또한 각 부처에서 심사중인 사업도 5개사업 82억여 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금능권역 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을 비롯 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지원사업,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용담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사업·154억여 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총 71개 사업에 73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윤형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해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가격리 위반하면 무관용 대응… 고발 조치"
정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
해외 입국자 무단이탈시
경찰 긴급출동·강제출국

정부가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면 강제출국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36곳의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제주도는 감면 기한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심각'이 하향 조정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면 대상도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51곳(제주시 45곳·서귀포시 6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일부 무료 주차장이 1차 감면 과정에서 유료로 전환되면서 15곳이 늘었기 때문이다.

감면 내용을 보면 당일 주차에 한해 ▷현행 주차요금의 50% 감면 ▷최초 무료주차 시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 ▷기존 감면대상(경형·장애인·국가유공자·전기차 등)에 대한 추가 감면 등이다. 다만 월 정기주차는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송은범기자

"품격 높은 인문학 강좌!"
2020학년도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모집

□ 모집기간: 2020. 3. 23.(월) ~ 4. 2.(목)
□ 지원자격: 각종 기관·단체 간부, CEO, 자영업자,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 운영기간: 2020. 4. 6.(월) ~ 12. 7.(24회)
□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 18:30~20:30 (2시간)
□ 과정 종료 후 제주대총장이 직접 수료증 수여
□ 등 록 금: 연 180만원(학기당 90만원)
□ 강의 주제와 강사

일정	강의 주제	강사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 (4. 6.(월) 16:00, 메종글래드호텔)		
제1강 (4. 6)	윤동주와 인문학	유성호 (한양대학교 교수)
제2강 (4. 13)	한국인은 왜 이렇게 먹을까? : 식사 방식으로 본 한국 음식문화사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3강 (4. 20)	조선의 법의학, 원통함을 없게 하라!	김호 (인천교육대학교 교수)
제4강 (4. 27)	호모루덴스 프로젝트	유지나 (동국대학교 교수)
제5강 (5. 1~3)	국내 연수('길 위의 인문학 I')	강문종 (제주대학교 교수)
제6강 (5. 11)	왕실, 소설에 빠지다!	임치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제7강 (5. 18)	옛 그림 속 인문학	윤진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수석연구원)
제8강 (5. 25)	내 생각은 어떻게 내 생각이 되었나	홍세화 (사회운동가)
제9강 (6. 01)	고려·조선 시기 제주 수공업	전영준 (제주대학교 교수)
제10강 (6. 08)	예술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주철환 (아주대학교 교수)
제11강 (6. 15)	조선의 왕으로 산다는 것!	신병주 (건국대학교 교수)

일정	강의주제	강사
제12강 (8. 11~14)	국외 연수('길 위의 인문학 II')	강문종 (제주대학교 교수)
제13강 (9. 7)	명화 속 성인문학	배정원 (차의과대학교 교수)
제14강 (9. 14)	『논어』, 인간의 길을 열다!	배병삼 (영산대학교 교수)
제15강 (9. 21)	조선어학회, 한글을 지키다!	정재환 (방송인)
제16강 (10. 12)	택리지와 한국 국토의 평론	안대회 성균관대학교 교수
제17강 (10. 19)	여신 신화의 지속과 변화	김헌선 (경기대학교 교수)
제18강 (10. 26)	창의와 도전, 세상을 바꾼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제19강 (11. 2)	한중 역사영토 분쟁과 통일	윤휘탁 (한경대학교 교수)
제20강 (11. 9)	김옥란과 함께 하는 국악 여행!	김옥란 (전남도립국악단 부감독)
제21강 (11. 16)	18세기 유럽 한복판으로 소환된 공자!	이동희 (한신대학교 교수)
제22강 (11. 23)	잊혀진 시베리아의 항일 영웅들!	박 환 (수원대학교 교수)
제23강 (11. 30)	책거리, 세계를 담은 조선의 정물화	정병모 (경주대학교 교수)
제24강 (12. 7)	술의 인문학	이화선 (우리술문화원 원장)

※ 접수문의: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 김미란 팀장 ☎ 064-754-2702, 박기환 조교 ☎ 064-754-2737
FAX (064-756-2722) E-mail (inmoon@jejunu.ac.kr)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524호
동구치과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의원
제주대 · 제주소방서 · 시청
제주중앙여고 · 제주지방법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